

좋은 직장, 명량한 직장을 만들기 위하여.....

아남산업 (주) 품질관리2부 김 순 희



입사 년 월일 : '79. 5월
 생 년 월 일 : '60. 5월생
 가 족 사 항 : 4남 5녀중
 여섯째 딸
 나 의 고 향 : 충남 서천
 한 달 용 돈 : 친구 만나서
 데이트하는
 비용
 원하는남성상 : 책임감있고
 성실한 사람
 삶의 가치관 : 근면 · 성실
 · 사랑

외모에서 풍기는 첫 인상과 부드러운 음성. 다소 날카로운 듯한 그의 눈매를 대하면 누구라도 쉽사리 빠질것만 같다.
 아남산업(주)의 품질관리2부 김순희 팀장. 올해 33세로 아남산업(주)와 더불어 목표를 향해 출발하여 모든 역경을

거치고 정상에 선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13년전 부천공장에 입사해서 회사와 더불어 생활해온 김순희씨는 "60년 5월 충남 서천에서 4남 5녀 중 여섯째로 태어나 많은 형제 가운데에서도 유난히 순하며 말 수가 적어

별로 특징이 없는 그저 착한 아이로 성장했다"고 말문을 여는 그녀는 집안일을 돕고 있던 중, 우연찮게 아남산업에 응시한 것이 사회생활 첫발을 내딛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김순희 팀장은 "'79년 5월

막연한 기대감과 또다른 미래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며 그 당시 생각들을 회고해 본다. "저는 여기에서 무엇인가 꼭 이룰것 같은 기대감에 가슴이 마구 뛰었고 처음 만져보는 봉급에 부자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며 "첫 월급을 타면 꼭 부모님의 속옷을 사드려야지..." 하는 내심의 기분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한다.

처음 입사해 맡은 업무는 CRT라인. 같은 또래의 새로운 직장동료들도 만나게 되었고 서로가 비슷한 처지였던 탓에 금방 가까워질 수가 있었다 한다. 하루 8시간 3교대 근무가 익숙하지 않아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야간 12시간의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차속에서 파김치가 되어 졸다가 집앞 정류장을 지나쳐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온 경우도 여러번 있었다고.

그러나 「하면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창의와 집념으로 정진없이 뛰었다고 한다.

김순희 팀장은 "우리 품질관리 2부는 서로 감싸주고 끌어주는 따뜻한 동료애와 포근한 사랑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게 하는 가족적인 분위기로 직장을 다니는 보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래! 이곳이 바로 나의 제2의 삶을 기대할 곳이다. 열심히 근무해서 집안도 돕고 결혼자금도 마련해야지..." 하는 막연하나마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김순희 팀장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업무에 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다.

품질관리의 일의 성격이 검사를 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 내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마침 제품에 대한 좋은 반응, 따라서 늘어나는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신입어사원들을 모집하게 됐고, 이들이 현장의 검사원으로 손색이 없도록 교육도 맡고 있다.

품질검사방법, 기계를 다루는 방법 등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솔선수범하는 능동적인 사고방식과 봉사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들이 검사원으로 손색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혼자 느끼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부천공장을 처음 가동시에 품질수준이 1,700DPM이 오늘에는 400DPM으로 향상되었고, QA검사원들은 165명에서 90명까지 줄이고도 품질향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검사원들의 품질의식에 기인된다고 한다.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김 팀장의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김순희 팀장은 1992년 4월 7일 전자·전기 수출 200억불 기념행사로 대통

령 표창을 받게 되었다. 어려운 시기에 받은 상이라서 기쁨이 더욱 컸으며 자랑스러웠으나 한편으로는 나보다 더욱 더 열심히 일해 준 동료들도 많은데...하는 미안한 생각도 들었다고, 처음 초급관리자가 되어 풀리지 않아 고민하던 인간관계, 되풀이 되는 단조로운 직장생활의 권태감, 아버지의 병환, 집안의 어려움 등등...어려웠던 일이 영화관의 필름처럼 생각난다며, 그러나 주의를 돌아보면 훨씬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았고 불행한 사람들도 많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보람을 찾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제 아남생활도 13년, 좌절과 시련도 많았지만 이자리에 똑바로 설 수 있게 된 것은 주위 사람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 그중에서도 동료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김순희 팀장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이 지나온 날을 후회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는 나름대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였고 또 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보다는 나라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실에서 앞으로는 나보다는 남을 위할 줄 알며 좋은 직장, 명망한 직장을 만들기 위하여 "행동 아남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김순희씨의 미래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